



제2회 <현대문학*미래엔 청소년문학상> 수상자 발표

현대문학사(발행인 김영정)는 5월 1일 제2회 <현대문학*미래엔 청소년문학상>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한국 현대문학의 산실 현대문학과 교육출판 미래엔이 청소년의 창의적인 사유와 무한한 상상력을 확립시킬 수 있는 문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2024년 제정한 <현대문학*미래엔 청소년문학상>의 제2회 수상자와 수상작은 **하유지**의 『어떤 로봇인지도 모르고』이다. 상금은 2천만 원이며, 수상작은 연내 현대문학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수상자 하유지

수상작 『어떤 로봇인지도 모르고』

심사위원 김민령 김지은 서희원



수상자 약력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나 단국대 문창과를 졸업했다. 2016년 『한국경제』로 등단했으며, 동화 『독고의 꼬리』 『너의 우주는 곧 나의 우주』 등이 있다.

심사평

『어떤 로봇인지도 모르고』는 등장인물들 사이의 대화가 재치 있고 문장이 탄탄하고 술술 잘 읽히는 등 장점이 많은 작품이다. 무엇보다 유머러스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진지한 질문을 놓치지 않는다. 중학생이라면 딱 읽기 좋겠지만 초등 고학년부터 성인 독자들까지 즐겁게 읽을 수 있겠다. ‘미래의 글쓰기’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이 작품은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올해 심사에서는 인상적인 서두로 기대를 갖게 했다가 난데없는 판타지로 비약해버리는 작품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훌륭한 기본기를 갖추어도 서사의 중심을 유지하지 못하면 좋은 작품을 완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야기를 써나가기 이전에 왜 이 이야기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로봇인지도 모르고』를 흔쾌히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왜 글을 쓰는가. 글쓰기는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놓는가. AI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질문이 여기에 있다. 수상자에게 축하와 응원을 전한다. 계속 묻고, 쓰고, 이야기하시길.

-김민령(아동문학평론가, 동화·청소년문학 작가)

이 작품이 던지는 궁극적 질문은 나라는 존재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류를 초월한 존재들의 자아를 탐색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다면 이 책의 주인공 미리내는 “나는 이야기를 쓴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겠다. 그런데 미리내의 ‘쓰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자기 자신의 것일까. 그리고 인류가 자아를 독과점하는 상황은 타당한 것일까. “마음도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라는 낭손의 말은 앞으로 우리가 자주 부딪힐 고민이 될 것이다. 작가는 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면서도 복잡한 층위로 동행하는 질문을 놓치지 않는다. 이러한 역량에 믿음이 갔다. 어떤 소설도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떤 앞날은 소설 안에 일찌감치 구체적인 형태로 들어와 있기도 하다. 이 작품이 그랬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김지은(아동문학평론가·서울예대 교수)

세 심사위원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동의로 선정된 수상작은 하유지 작가의 『어떤 로봇인지도 모르고』였다. 소설가를 꿈꾸는 아마추어 작가인 중학생 강미리내의 일상에 들어온 인공지능 로봇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에서 강미리내는 자신의 집에 배송된 가사도우미 인공지능 로봇-“낭손”-에게서 자신이 그토록 찾던 성실한 독자의 모습을, 신뢰할 수 있는 창작 조언자의 면모를 발견한다. (……) 글을 읽고, 쓰는 과정을 통해 자아를 성장시키는 인물의 모습은 익숙한 소재이지만 작가는 이를 인공지능 서비스와 연결하며 ‘지금 여기’의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적 문제로 제시한다.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 작가의 창작인지 아니면 기계적 표절인지 갈등하는 미리내의 내면과 또래 집단의 시기는 서사 내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인 현실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어떤 로봇인지도 모르고』의 훌륭한 점은 이러한 변화를 서사에 등장하는 인물만의 것이 아니라 이를 읽어내는 독자의 공감으로 확장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서희원(평론가·동국대 교수)

수상 소감

작년에 나는 글쓰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회의하는 시간을 보냈다. 잘 쓰는 사람도 많고 좋은 소설도 많은데 내가 무슨 희망과 염치로 글을 써야 할지 몰라 괴로웠다. 원래 걱정이 많은 편이라 주기적으로 하는 고민이긴 하지만, 이번 방향은 유독 힘들었다. (……) 올해로 등단한 지 10년이 되었다. 어떤 분야에서든 10년이 그다지 길지만도 않은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그동안 소설을 쓰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딪칠 때마다 ‘그래도 10년은 해봐야지’ 다짐하며 버텼는데, 올해 받은 이 상으로 10년 치 의욕과 에너지를 든든히 비축해둔 기분이다. 폭력과 혐오가 난무하는 막막하고 잔혹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슬픔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발견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중 반짝이는 빛 몇 조각을 손안에 꼭 쥐고 들여다본다. 나에게도 소설 쓰기가 이 세계와 사람들을 응시하는 방법이다. 앞으로도 나의 일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하유지(동화·청소년문학 작가)